

## 第 5 節 世界 標準化 動向

### 1. 世界 情報産業關聯 標準化 現況

#### 가. 概要

현재는 정보화 시대로서 세계 각국이 이러한 情報化 시대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동참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앞서 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로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에 발맞추어 여러 선진국가들은 자국내에 ISO, CCITT등과 같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ISO로부터의 국제표준에 관한 논의와 자국내의 표준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표Ⅳ-5-101>과 같이 몇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標準의 종류는 표준화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國際標準, 地域標準, 國家標準, 團體標準, 社內標準으로 나눌 수 있다.

#### 1) 國際標準

국제표준은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합의가 도출된 표준으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등에서 제정한 표준이 그 예이다.

#### 2) 地域標準

지역표준은 어느 특정지역에 소속된 국가들의 참여하에 합의가 도출된 표준으로 EU(European Union) 지역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 표준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3) 國家標準

국가 표준은 어떤 국가내의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TTA(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 표준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가표준은 어떤 국가내의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표준(KS), 일본의 공업표준(JIS), 미국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표준 등이 그 예이다.

4) 團體標準

단체표준은 어떤 국가내의 표준화단체가 합의한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표준, 일본의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표준, 미국의 T1(Committee T1) 표준 등이 그 예이다.

5) 社內標準

사내표준은 어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생산자나 자체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혹은 기기 제조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표준을 말한다. KT나 DACOM등 통신망 사업자 혹은 情報通信機器 生産업체의 표준이 이 부류에 속한다.

〈표 IV-5-101〉

표준의 종류

분류기준	표준종류
표준화 범위	국제표준(ITU, ISO, IEC 등) 지역표준(ETSI) 국가표준(KS, ANSI, JIS 등) 단체표준(TTA 등) 사내표준(KT, DACOM 등)
표준화 구현정도	기본표준(ISO, ITU 등) 기능표준(EWOS, NIST 등) 이용자표준(MAP, TOP, GOSIP 등) 시험규격(각종시험규격서)
표준의 적용방법	강제표준(기술표준) 권고표준(KS, 정보통신국가표준)
표준화 진행정도	ISO 표준 - 초안(DP : Draft Proposal) - 초안(DIS : Draft Int'l Standard) - 표준안(IS : Int'l Standard) ITU 권고 - 권고초안(Draft Recommendation) - 권고안(Recommendation)

한편 標準의 구현정도에 따라 기본표준(Base Standard), 기능표준(Functional Standard), 이용자표준(User Profile), 시험규격(Test Specifi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표준은 ISO, 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것으로 구현의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하는데, 기본표준은 광범위한 응용을 대상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 사용자 선택사항들이 존재하게 된다. 기능표준은 이러한 기준표준을 바탕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사항까지 구체화한 표준인데 특정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기본표준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 중 일부만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기본표준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용자표준은 어떤 특정분야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표준을 말하며 GOSIP (Government OSI Profiles), MAP(Manufacturing Automation Protocol), TOP(Technical and Offices Protocol)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시험규격은 구현된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규격을 말한다.

이외에도 표준의 적용방법에 따라 강제(Mandatory) 표준과 권고(Recommended) 표준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표준화 진행정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 나. 世界의 標準化 動向

오늘날 情報處理 분야 중 정보통신표준화가 국가의 핵심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다양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여하는 동시에 지역, 국가 표준화 기구들을 통하여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情報通信 분야의 표준화 대상도 과거와는 달리 유선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무선 및 정보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들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그리고 ISO/IEC JTC 1 등이 있다. 국제적인 전기통신의 표준화는 ITU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유선통신 분야는 CCITT, 무선통신 분야는 CCIR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

CCI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標準化 분야는 전기통신 전반에 걸쳐 있는데, 주요 대상은 전기통신 서비스, 망의 운용 및 유지보수, 전자기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교환 및 신호방식,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망 등이 있다. CCIR에서의 대상은 무선통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스펙트럼의 이용 및 감시, 우주연구 및 전파천문, 무선중계, 방송, 전파전송, 그리고 이동통신 등이 있다.

이러한 國際 標準化 機構의 標準化 活動은 회원국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추진되는데 표준화 작업의 신속성을 위하여 지역별, 국가별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美國의 T1-위원회, 유럽의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ETSI), 日本의 전기통신기술협회(TTC)는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협력을 위하여 지역간 통신 표준화 회의(ITSC)를 결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통신기술협회(TTA)가 가입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표준화 과제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지능망, 전기 통신망 관리(TMN), 범세계적 개인통신(UPT), 협대역 ISDN(N-ISDN), 그리고 오디오 비주얼 서비스(AVS) 등의 분야이다. 그러나 ITSC는 1992년을 끝으로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로 새로 결성되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표준개발 협력 분야로서 7개 분야—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지능망, 전기 통신망 관리(TMN), 범세계적 개인통신(UPT), SONET/SDH, 미래 육상이동통신시스템, 멀티미디어—를 선정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UNIX의 標準化는 UNIX 시스템간의 호환성과 응용 프로그램의 이식 문제에 의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4년 /usr/group/에 표준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委員會에서는 프로그램의 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NIX 운영체제를 기초로 시스템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격은 IEEE P 1003 위원회로 전달되어 POSIX 1003.1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IEEE 1003 위원회는 UNIX를 기반으로한 운영체제에 대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체제 뿐만아니라 개방시스템 환경을 구성하는 정보기술 전반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IEEE에서 개발된 POSIX 표준들은 ISO/IEC JTC 1 SC22 WG 15로 제출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는데 현재 IEEE 1003.1-1990이 IS 9945-1로 제정되었고 IEEE 1003.2와 1003.2에 대한 사용자 이식성 확장 표준인 IEEE 1003.2a를 한테 묶은 DIS 9945-2가 곧 국제규격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X/Open에서는 자신들의 개방시스템 규격인 XPG(X/Open Portability Guide)에서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IS 9945-1 : 1990과 DIS 9945-2 : 1992를 채용하고 있다.

IEEE나 X/Open과 같은 표준화 단체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식성을 위해 핵심이 되는 인터페이스만을 표준화하며 운영체제 자체는 업체나 OSF(Open Software Foundation) UI(Unix International)와 같은 업체 컨소시엄에서 표준규격을 바탕으로 구현하고 있다.

## 2. 世界 分野別 標準化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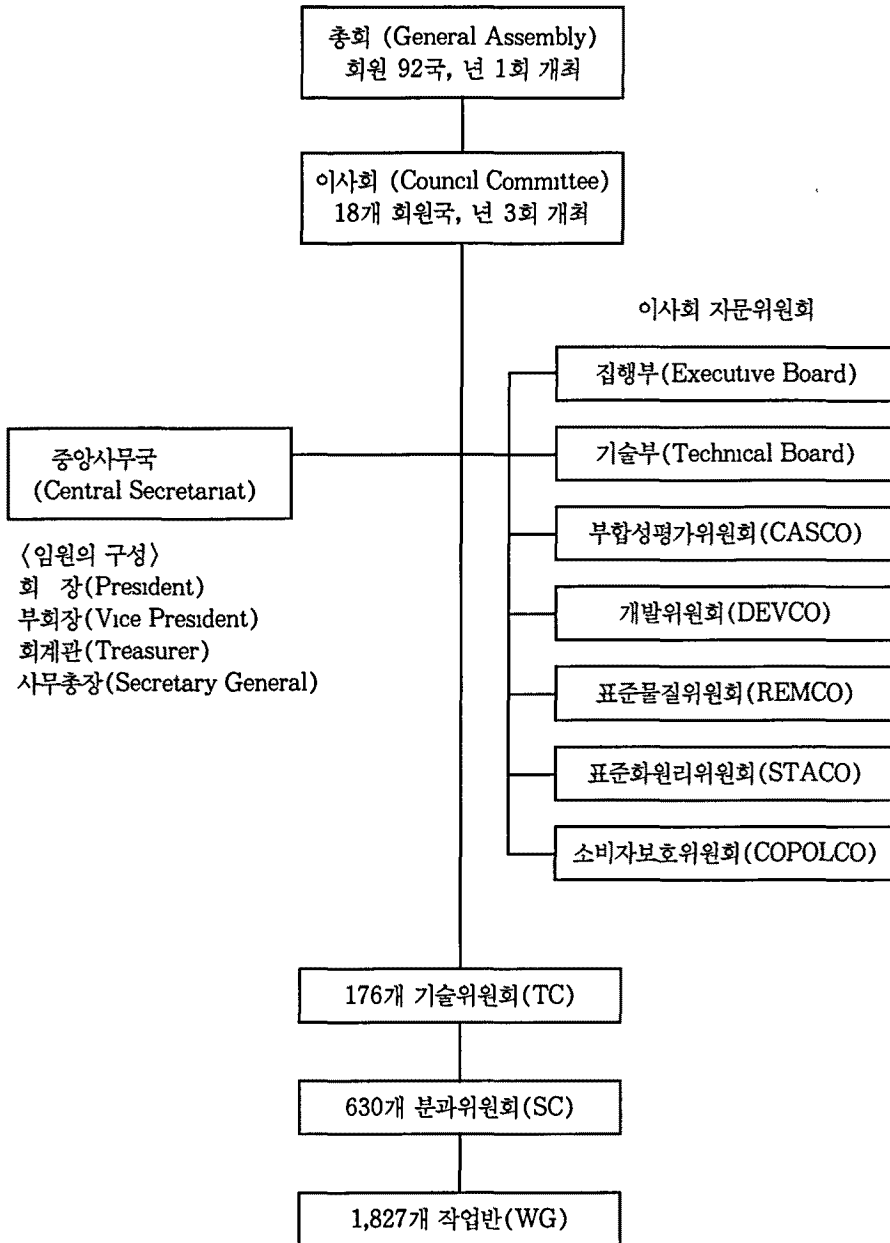
### 가. 國際標準機構(ISO)

國際標準機構는 1947년에 설립되어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및 여러 관련 활동을 국제 규모로 발전·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기구의 주요 활동은 국제 규격의 제정 및 배포, 회원기관과 技術委員會 업무에 관한 정보 교환, 표준화와 관련된 다른 국제 기구와의 협력 등이다. 현재 국제 표준 기구의 회원국은 총 92개국에 이르며 보유규격수는 8,651종에 이른다.



〈표 IV-5-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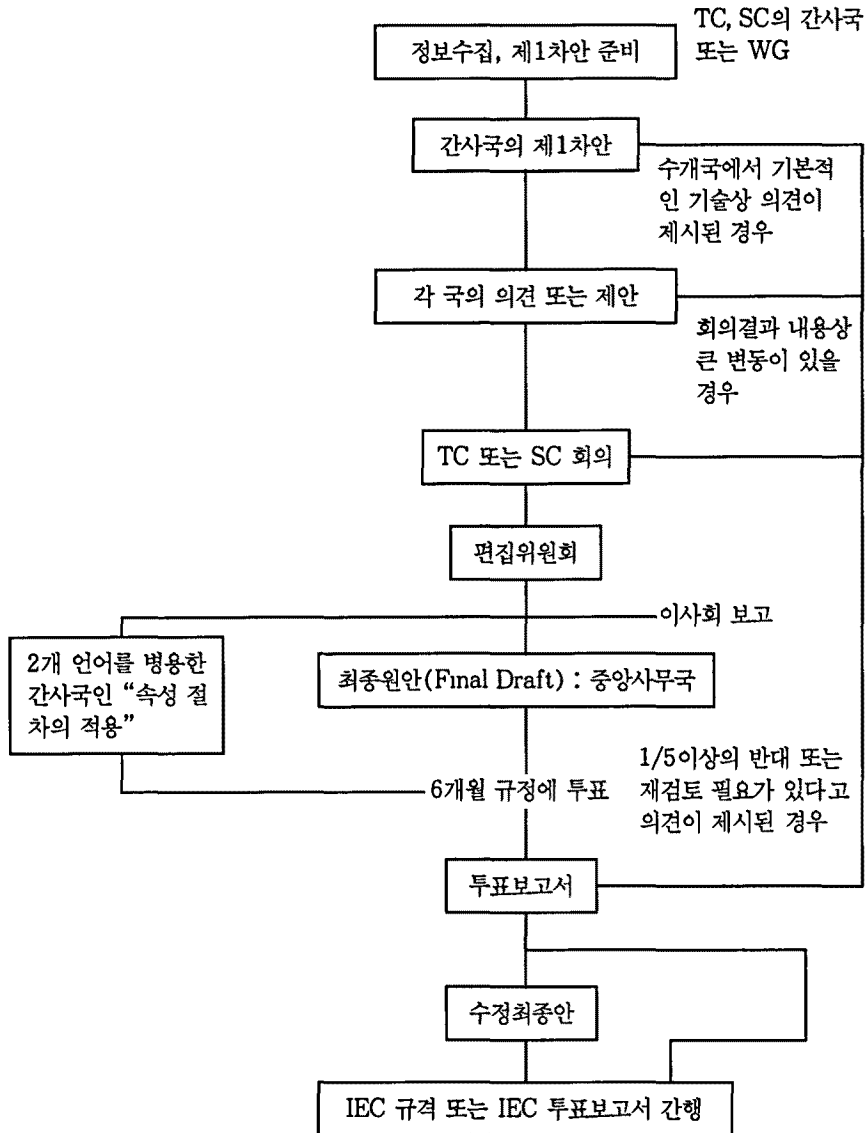
국제 표준 기구 조직도



IEC의 규격 심의 절차는 <표Ⅳ-5-203>과 같다.

<표Ⅳ-5-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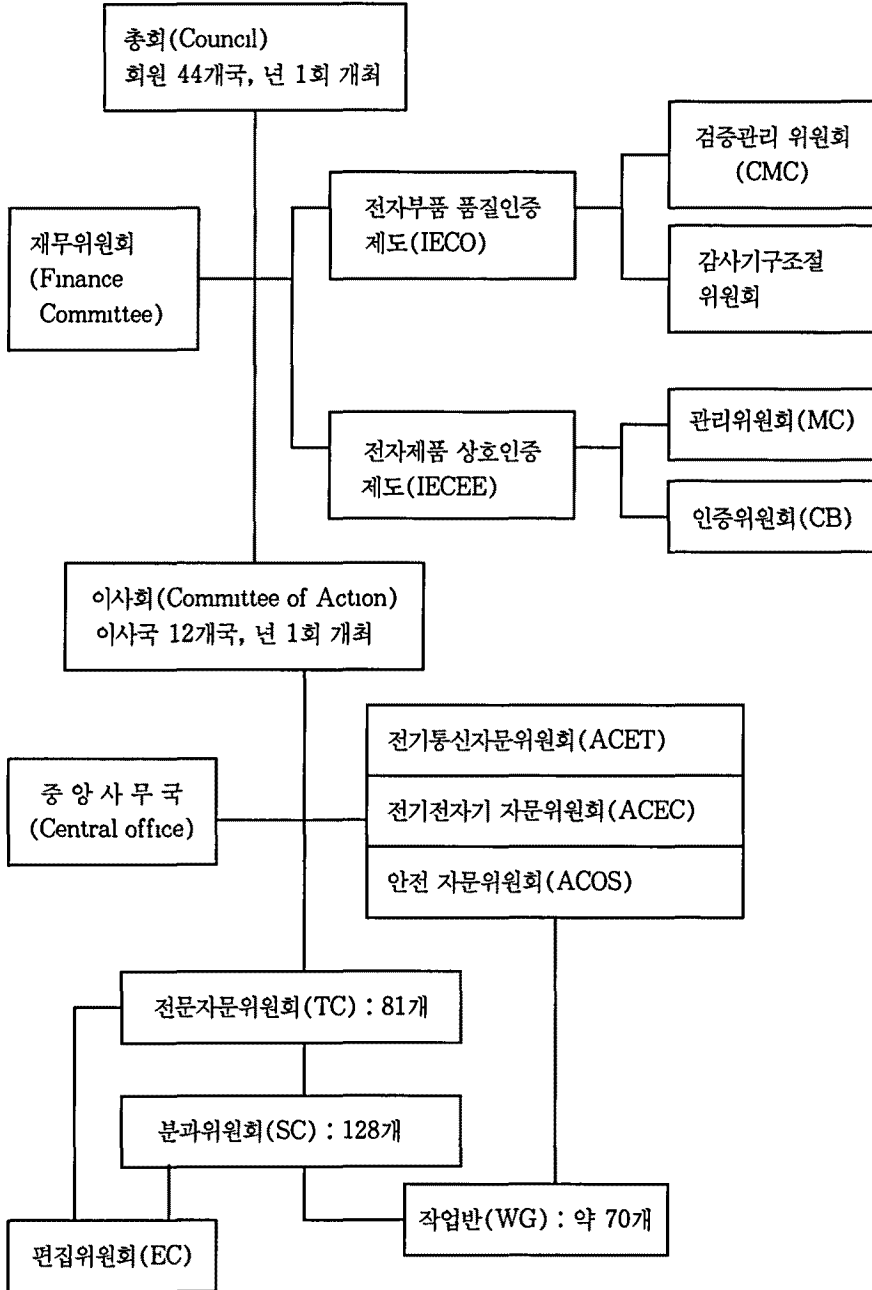
IEC의 규격 심의 절차



IEC의 組織은 <표 IV-5-204>와 같다.

<표 IV-5-204>

IEC의 조직도





이사회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TC)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작업 범위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작업을 실행하며 國際規格을 작성한다. 작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 분과위원회(SC : Sub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다. IEC에는 '89년 기준으로 81개의 TC와 128개의 SC가 설치되어 있다.

### 다. ISO/IEC의 合同 技術委員會(ISO/IEC JTC 1)

ISO/IEC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1)은 1987년 11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가 공동으로 설립한 정보기술의 국제적인 技術委員會로서 미국, 일본 등 전세계의 5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산하에 19개 분과 위원회와 87개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정보기술전반의 국제표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SO/IEC JTC 1 組織은 〈표 IV-5-205〉와 같다.

ISO/IEC JTC 1은 1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업무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서로 다른 정보처리분야의 표준화 업무를 상호 협조체제하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JTC 1에서 총 633종의 國際規格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550종이 규격안으로 제정중에 있으며 520종이 NWI(New Work Item)으로 연구 중에 있다.

다음은 ISO/IEC JTC 1내 19개의 分科委員會에서 수행하는 정보처리 분야의 업무이다.

#### 1) JTC 1/SC 1

SC 1은 정보기술 관련용어의 제정과 정의에 대한 標準化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SC 1에서는 5개의 작업그룹(Working Group)-WG 1, WG 4, WG 5, WG 6, WG 7로 나뉘어져 있어서 주로 기본용어와 사무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산 및 서비스, 그리고 通信 등의 용어에 대한 國際標準化를 담당하고 있다.

#### 2) JTC 1/SC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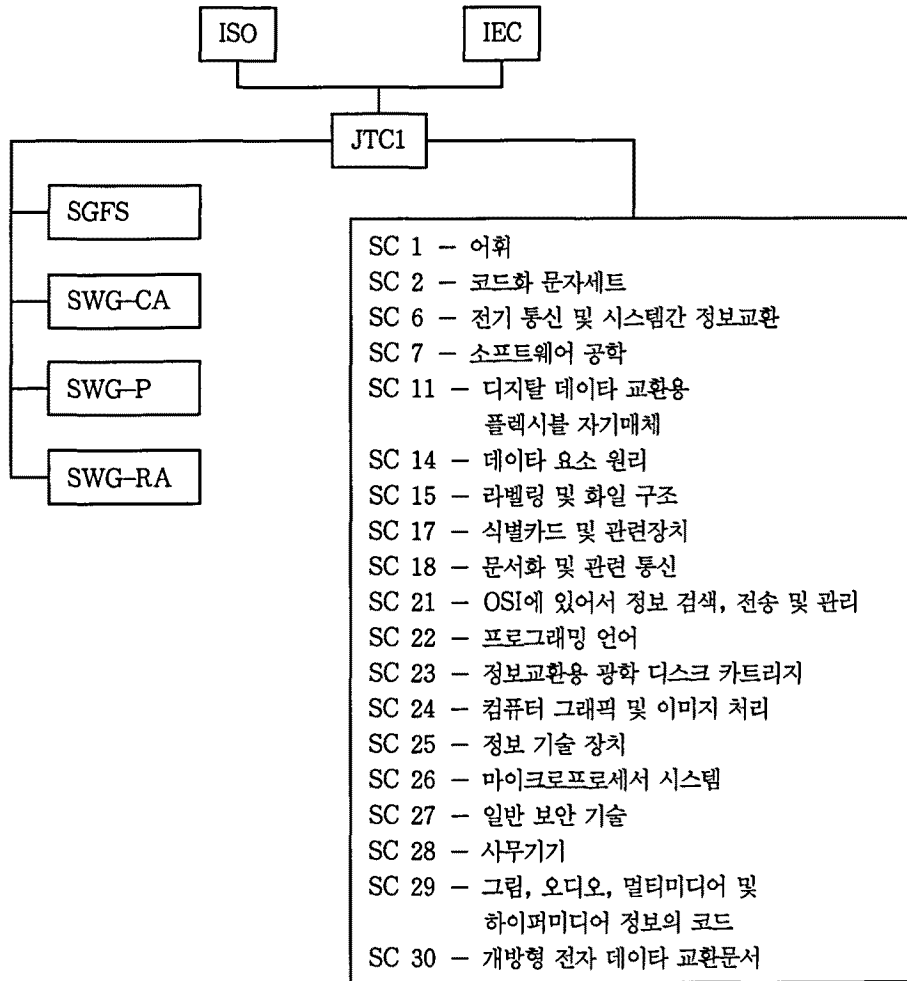
SC 2는 코드화 문자세트(Coded Character Sets)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영역으로서 7 bit, 8 bit 코드 이외에 다중 옥테트 코드(Multiple Octet Code) 표시 등이 속한다.

#### 3) JTC 1/SC 6

SC 6은 OSI 참조모델중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하위 4계층에 대한 國際標準化 작업을 수행한다. SC 6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표준화 항목으로는 각종 커넥터 사양 등의 물리층 규약, CSMA/CD, 토큰 버스, 토큰링의 근거리 통신망의 규약과 DQDB와 같은 지역망 규약, 그리고 패킷망, 전화망, 綜合情報通信網(ISDN)과 같은 각종 망에의 접속 규약 및 이러한 망간의 연동규약이 있으며, 이 밖에 ISDN 구내

〈표 IV-5-205〉

ISO/IEC JTC1의 조직



교환 규약 등 데이터 연결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하위계층의 적합성 규약, 관리규약, 정보 보호규약 등의 표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는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통신 규약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이와같이 SC 6에서 다루는 표준화 대상이 통신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특히 사용자 측면의 제품에 대한 규약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通信裝備등을 개발하는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다.

#### 4) JTC 1/SC 7

SC 7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검사에 필요한 도구, 지원방법의 표준화, 그리고 관리기법의 지침개발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 分科委員會의 작업그룹은 8개이다. WG 1은 소프트웨어 文書化와 관련된 기호 및 도표, 다이어그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WG 2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문서화, WG 4는 도구 및 환경, WG 5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참조 모델, WG 6은 평가 및 관련 표준화 및 기술보고서의 준비, WG 7은 생명주기 관리, WG 8은 생명주기 프로세스, 그리고 WG 9는 분류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5) JTC 1/SC 11

SC 11은 테이프,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카트리지, 그리고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와 같은 플렉시블 자기 매체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의 기록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 6) JTC 1/SC 14

SC 14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要素의 標準化 활동을 기본범주로 설정하여, 현대 국제 단체나 일반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표준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ISO 규격화를 꾀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간에 교환되는 데이터 要素의 표현 및 데이터 要素들이 조합되는 구문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데이터 要素의 표현(Representation of Data Elements)”이라는 타이틀로 연구 및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데이터 要素 原理(Data Elements Principles)”라는 타이틀로 제안되어 바뀌었으며, 활동 영역도 “정보 처리 시스템간 교환되는 데이터 要素(정의, 서술, 분류, 표현 및 일반 규칙 및 지침 등 포함)”에 관한 표준화를 대상으로 하기로 1992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ISO/IEC JCT 1/SC 14 제15차 總會에서 의결하였다.

#### 7) JTC 1/SC 15

SC 15는 정보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媒體에 기록된 데이터 파일과 레이블의 구조 및 형식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 8) JTC 1/SC 17

SC 17은 識別카드 및 관련 장치의 표준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 분과위원회내에 있는 작업그룹들은 6개로서, WG 1은 識別카드에서의 물리적 특성 및 검사 방법, WG 3은 기계 판독여권, WG 4는 집적회로 카드, WG 5는 기록 관리 그룹, WG 8은 무접촉 집적회로 카드, 그리고 WG 9는 광학 기억 장치 카드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 9) JTC 1/SC 18

SC 18은 事務 시스템 및 文書 處理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세부 표준화 작업은 事務 文書 構造 및 분산 事務 서비스를 포함한 文書 교환 절차, 文書 설명과 처리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호에 대한 것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원래 “文書 및 事務 시스템”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文書 處理 및 관련 통신”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한다.

## 10) JTC 1/SC 21

SC 21은 OSI 기본 참조 모델, 상위계층 프로토콜, 보안구조, 데이터베이스 표준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표준, 개방형 정보처리 모델 등의 매우 중요한 과제를 다루는 모임으로 JTC 1이나 ISO 내부에서는 가장 활동적인 그룹이다. 國際적으로는 1984년 OSI 기본모델의 제정, 그리고 수십 종이 넘는 프로토콜의 표준 제정이 끝나므로 표준의 보급과 상업적인 적용의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SC 21은 92년도에 그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표준이 어느 정도 완결된 작업그룹들을 통합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를 기본표준의 확장으로 정하고 있다. SC 21의 큰 업적인 情報 교환 모델인 OSI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관리표준, 보안구조 점검 등이 주요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데이터베이스, 개방형 정보 처리 모델 등이 대표적인 研究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 11) JTC 1/SC 22

SC 22는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와 언어환경,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분야에 대한 標準化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Pascal, APL, COBOL, FORTRAN, BASIC, Ada, Modula-2, C, C++, LISP, Prolog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및 이들 프로그래밍 언어와 각종 도구간의 바인딩에 관한 기술, 그리고 ISO 표준의 각종 세부사항과 POSIX(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를 일치시키기 위한 POSIX 표준, 그리고 SC 22 분야의 표준화 항목들 중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풍습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각국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개발해 내는 I18N(Internationalization) 등이 있다.

## 12) JTC 1/SC 23

ISO/IEC JTC1 산하의 SC 23은 “정보교환용 광 디스크 카트리지(Optical Disk Cartridg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에 관한 국제적인 제정을 도와주는 分科委員會이다. 이 SC 23은 적극 참여를 뜻하는 P-member 국가가 현재 25개국에 이르며, 그 중에서도 광 디스크 분야의 주공급국인 일본과 주 수요자인 미국 및 EC의 주도적인 활동이 두드러지나, 실질적으로는 이 분야의 기술선발업체인 Sony, IBM, Philips 등 다국적 기업들이 표준규격활동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간에 대단히 미묘

한 전략경쟁이 표출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13) JCT 1/SC 24

SC 24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이미지 처리의 國際 標準化 研究를 수행하고 있다. SC 24내 4개의 작업그룹별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 WG 1 : - 컴퓨터 그래픽스 참조모델의 개발 및 유지
  - 컴퓨터 그래픽스와 이미지 처리 영역의 사용자 요구의 수집
  - 컴퓨터 그래픽스 표준과 이미지 표준에 관한 기술 명세
  - 컴퓨터 그래픽스 표준과 이미지 표준의 테스트와 구현에 대한 방법, 절차 개발
- WG 4 : - SC 24 표준에 대한 언어결합 리뷰
  - 등록을 위해 제안된 항목의 언어결합 리뷰
  - 비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결함 리뷰
  - 그래픽 항목의 등록을 위한 방법과 절차 개발
  - 등록을 위해 제안된 항목에 대한 투표 의견의 리뷰와 해결
- WG 6 : -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사양 표준화
  - 컴퓨터 그래픽스 메타파일과 컴퓨터 그래픽스 장치 접속을 포함한 그래픽 정보교환의 표준화
  - SC 23 표준에 대한 인코딩 방법의 표준화
- WG 7 : - 응용 프로그래머 인터페이스와 이미지 교환 형식 사양을 위한 관련 기능사양 및 이미지 구조 개발

### 14) JTC 1/SC 25

SC 25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그리고 관련 연결 매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분과위원회는 4개의 작업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WG 1은 가정용 전자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WG 2는 기술 장비를 위한 光通信, WG 3은 케이블링 시스템의 특성, WG 4는 컴퓨터 시스템과 주변기기의 연결에 대한 표준화가 주된 작업영역이다.

### 15) JTC 1/SC 26

SC 26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그룹은 3개로 구성된다. WG 1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어의 정의 및 記號化 코드(Mnemonic) 표현에 대한 표준화, WG 6은 IEC 공고 821의 수정안, WG 8은 VICbus 명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 16) JTC 1/SC 27

SC 27은 情報保安을 위한 방법과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C27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보안 서비스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밝혀내고, 둘째, 보안 기술 구조(등록 절차와 보안요소의 관계를 포함)를 개발하며, 셋째, 위험(Risk) 분석 및 보안 지침을 개발하고, 넷째, 용어 및 보안 평가 기준 등 보조적인 문서 및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단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와 保安技法의 응용에의 적용에 관한 표준화는 제외한다.

### 17) JTC 1/SC 28

SC 28은 1990년에 만들어진 SC로서 그 표준대상 범위는 프린터, 복사기, 전자 타자기, FAX 등이며, 그 성격이 CCITT가 관장하는 通信機器와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점차 통신과 컴퓨터와 연결 사용되거나 그들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그 표준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18) JTC 1/SC 29

ISO/IEC JTC 1/SC 29는 1991년 11월 21일 동경 회의에서 창립되었으며 오디오, 화상,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의 符號化에 관한 표준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로, 산하에 4개의 작업그룹을 두고 있다. SC 29는 특히 컴퓨터가 문자형 정보만이 아니라 비문자형 정보(오디오, 비디오)를 취급하는 JBIG(WG 9)와 정지 화상의 이진부호화를 취급하는 MPEG(WG 11)에는 회의시 각국의 전문가가 200명 가까이 몰리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SC29의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디오, 화상,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표준화와 이 정보에 사용되는 압축과 제어 기능 집합의 표준화 :

오디오 정보, 이진 및 픽셀당 연속 톤 정지 화상,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동적화상 및 연관된 오디오, 실시간 최종형태의 교환을 위한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정보 오디오, 비디오 인터랙티브 스크램터를 포함하며 문자 부호화는 제외함.

### 19) JTC 1/SC 30

SC 30은 OSI 참조모델의 應用階層에서 Open-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DI는 기업간 거래 또는 기업내 부서간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발전되었다. 80년대에 특정 기업군 또는 기능군 간의 EDI가 활발해 지면서, 여러 기업/기능 부문에 걸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EDI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기업/기능 부문에 걸친 상호 작용을 위해 國際標準이 필요하며, EDI에 참가하는 주체들은 이러한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현재는 표준화 작업의 시작 단계로서 Open-EDI 참조모형(Reference Model)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계속해서 EDI 지원서비스와 사업합의에 관한 표준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 라. 主要國의 標準化 機構

세계 각국은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내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ISO/IEC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의 標準化 機構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 1) 미국표준협회(ANSI)

미국표준협회(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1918년에 설립되어 현재 규격발행 총수는 11,000여개에 이른다. 규격범위는 전자공학, 정보기술, 기초과학, 특수기술, 기계공학 등이다. 협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美國 國家 標準化 제도의 총괄 조정기구이다. 둘째, 자발적인 지역표준의 개발 조정 및 승인기관이다. 셋째, 미국 국가규격의 국제규격에의 부합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PASC(태평양 지역 표준회의) 및 ITU(국제 전기 통신 표준회의)에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 2) 프랑스標準協會(AFNOR)

프랑스표준협회(AFNOR :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는 1926년에 설립되어 현재 규모는 54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協會의 규격발행 건수는 16,785개에 이르며 규격범위는 전자공학, 정보기술, 기초과학, 특수기술, 기계공학 등이다.

협회의 주요 기능은 첫째는 표준의 개발이다. 둘째는 프랑스 國家規格 制定 및 발행, 보급이다. 셋째는 외국기관 및 표준화 관련 국제회의에서 프랑스를 대표한다. 끝으로 ITU(국제전기통신표준회의)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3) 영국標準協會(BSI)

영국표준협회(BSI :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1929년에 설립되어 전체 650여명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규격 발행수는 12,515개에 이르며 규격범위는 전자공학, 정보기술, 기초과학, 특수기술, 기계공학 등이다.

협회의 주요기능은 첫째, ISO/IEC의 理事國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영국 국가규격의 제정 및 승인, 발행보급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CEN/CENELEC(유럽 표준화기구)등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